

FTA협상 진단과 처방

FTA 협상에 대비한 양계산업의 진단과 처방

-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김 정 주 건국대학교 생명자원 경제학과 교수



한·미 FTA 등으로 수입이 자유화된 양계산물은 보다 낮은 관세로 수입이 개방될 것이며, WTO/DDA 협상이 지속되어 타결되고, 한·EU FTA, 한·중 FTA, 한·일 FTA 등이 추가적으로 체결되면 관세가 더욱 낮아진 양계산물 수입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손놓고 있을 경우 다른 양계산물 주산 국가에 비하여 그 가격이 2~3배 비싼 한국의 양계산업은 존립이 어려워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축산분뇨의 환경오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할 것이며 축산분뇨, 약취 및 질소 배출량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어서 한국의 양계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의 양계산업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한국의 양계산업은 지난 2003년 12월과 2006년 11월에 발병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절대 절명의 위기를 두 번씩이나 맞았고, 천신만고 끝에 이를 극복하고 정상궤도에 진입한 듯하나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공급체계를 구축함에 시급함에도 생산되지 한 달이 넘는 계란이 버섯이 상온에서 유통되고 있어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으니 신선도와 안전성만으로 외국산 양계산물과 경쟁을 할 수 없다. 계분이나 닭털

이 그대로 계란에 붙어있는 일이 다반사이어서 소비자들이 계란에 대한 혐오감을 가질 우려가 크다.

양계산업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소비 촉진임에도 양계산물에 대한 소비 홍보가 미흡하다. 결과적으로 축산물 중에서 계란의 소비량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이 바뀌어 국산 농산물 애용을 애국심에 기대 호소하는 마케팅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

계란도매시장을 통한 계란가격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함에도 가격 결정에 중심적 역할을 할 계란 도매시장이 없어 상인과 농가 간 흥정에 의해 그때그때 가격결정이 이뤄지고 일부 대규모 상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란계 의무자조금 제도는 출범도 못하고 있다. 산란계의 경우는 자조금 거출기관이 노계도계장으로 처음부터 잘못 지정되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을 고치자는 방안도 나왔으나 쉽사리 고쳐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사료업계, 부화업계를 자조금 거출기관으로 지정해보려 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육계산업의 고질병은 뭐니 뭐니 해도 계열화 현장에서의 사육농가와 계열업체간의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노사가 대립하는 노동현장을 방불케 하는 대결구도임에도 쉽사리 완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의무 자조금제도가 출범 못하고 있기는 육계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자조금 관리위원회 임시대의원회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는 바람에 관리위원회와 감사 선출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사정이 매우 복잡하다. 육계의 경우는 생산량의 90% 정도가 계열화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도계장에 들어오는 닭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계열회사에 있음에도 자조금은 사육농가가 관리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농가와 계열업체간의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양자의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수입닭고기가 해동과정에서 위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냉동수입 닭고기를 해동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4~5℃ 냉장실에 2~3일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온에 방치하거나 여름철에는 물에 담가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써 위생적 처리 문제 심각할 뿐 아니라 닭고기의 질적인 변화도 우려된다.

육계, 산란계 할 것 없이 종계산업이 불안하다.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가 자체의 차단 방역도 중요하지만 종계·부화장에서 생산된 병아리가 질병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종계장의 병아리는 기본적인 백신프로그램조차 준수하지 않아 질병 전파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오랫동안 묵인되어왔던 양계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규제하는 법규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배합사료가격이 1년 사이 네 차례나 인상되었어도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이다. 사료용 옥수수가 바이오 에너지로 대체되는 바람에 사료용 옥수수 가격이 2007년 10월 10일 현재 톤당 250달러를 넘어섰다. 그런데 이러한 상승이 언제쯤 안정될 것



인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러한 배합사료 가격 인상은 배합사료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양계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를 대비한 양계산업의 과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양계산물 생산농가에게 상응한 일정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경영체로 육성하는 일이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양계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직하게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자 단체, 정부, 기타 관련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여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필요한 과업임에도 현상타가에 매달려 급급한 나머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양계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직하게 유통시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수입 양계

산물과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계란의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하여 계란 집하장을 확대 개설하고 계란 기준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계란 경매시장을 건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건강하고 유전형질이 우수한 병아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수급조절기능까지 발휘할 수 있도록 종계장과 부화장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또한 현행 종계장과 부화장설립이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제로 환원, 종계산업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양계산물 소비 홍보와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란계, 육계 공히 의무 자조금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육계 계열화 체계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육계 산업 평화 정착이 필수적인 바, 육계 계열화 사업 중재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부당

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양계산물의 균납을 통하여 양계산물의 소비 확대와 수급조절까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양계산물 균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미지역이나 일본, 홍콩, 대만등지 해외동포와 아시아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삼계탕과 같은 가공육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료용 옥수수가 바이오 에너지로 대체될 것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던 일이다. 그럼에도 사료곡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지금껏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축산정책 지원 사업의 일부를 수정해서라도 사료

가격안정을 위해 사료기금을 조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사료곡물 확보를 위하여 선물시장 전문가양성, 옥수수 공급기지의 현지 개발 등 장기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재발을 막아 국내 가금 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육농가의 자율적인 방역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국이 아무리 방역강화를 외치더라도 현장방역활동까지 모두 완벽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변국에 만연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활동이 뒤따라주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은 농가와 관계자에 대한 끊임 없는 교육으로서만 가능할 것이다. **양계**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목초액)

대 표 : 최 성 태
휴대폰 : 011-374-8461~2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 화 : (055)374-8461~2
팩 스 : (055)375-8461